

다섯명이 무대 올라 흥과 절절한 마음 실어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판소리 다섯바탕의 향연-고색창연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며, 전북도립국악원(원장 광승기)이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예술로의 동행은 주제로 선보이고 있는 <2016 목요국악예술무대>의 시즌 마지막 무대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향연-고색창연'으로 전개될 이날 공연에는 판소리 다섯바탕의 맥을 잇는 30~40대 창극단 단원 5인이 무대에 올라 세세한 가사표현의 소리를 실어낼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심청가 중 '타루비 탄식 대목'으로, 타고난 소리공력을 자랑하는 장문의 단원과 정준호 고수가 무대에 오른다. 이는 심봉사 사심청의 님을 기린 타루비에 찾아가 탄식하는 대목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배어났다.

이어 아무지고 당찬 소리에 차복순 단원과 고수에 박추우 단원이 무대에 올라 흥보가 중 '박하는 대목'을 선보인다. 이 대목은 서민 소리를 대변하는 흥

보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진양조장단의 진계면은 슬픔을 중중꼬리장단의 돈타령은 흥을 더한다.

세 번째 무대는 유비의 군대가 재갈공명의 주술로 인해 동남풍을 얻어서 화공으로 조조의 백 만 대군을 몰살시키는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으로 판소리 다섯바탕에서 최고로 꼽히는 바탕소리이다. 무대에선 듣는 이로 하여금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소리의 김도현 단원과 고수 전준호를 만나 볼 수 있다. 또 울곧은 소리를 갖은 박영순 단원과 고수 박추우는 춘향이 정절을 지키고 이몽룡과 만나는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으로 관객과 인사한다.

대미는 별주부가 용왕의 병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려 바깥 세상에 나왔다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에 감탄하며 부르는 대수궁가 중 '고고천변 대목'으로 장식된다. 깊고 큰 울림의 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는 김세미 단원과 고수 전준호가 정쾌하고 흥겨운 가락을 선사할 예정이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향연-고색창연'으로 전개될 이날 공연에는 판소리 다섯바탕의 맥을 잇는 30~40대 창극단 단원 5인이 무대에 올라 세세한 가사표현의 소리를 실어낼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에 매는 홈페이지 <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오후 6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문의 290-6840. /정해은 기자

전국벽골미술대전 대상에 박랑주씨

(사)한국미술협회 김재자부(지부장 강우석)가 주최한 2016년 제17회 전국 벽골미술대전 종합대상에서 서양화 분야 작품명 "고목 속 생명의 소리"를 출품한 박랑주(45, 전주시)씨가 22일 선정됐다.

이번 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부문으로 전국 각지에서 383점의 작품이 출품됨으로써 열띤 경합을 벌였다.

각 분야 부문별 대상은 한국화 부문은 김원삼(김제시)씨의 "마음 한편의 그림을 하나 풀", 문인화 부문은 서혜순(전주시)씨의 "배화", 조각 부문은 김주원(세종시)씨의 "공감"이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신동 전북미술협회 지회장은 "소재의 선택과 기법면에서 탁월하며, 깊은 내면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상작과 출품작은 아리랑문화관 내 창작스튜디오 전시실(2층)에서 오는 11월 25일까지 전시된다.

전국 벽골미술대전은 전국의 예술가들에게 문화를 개방한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초대작가 및 우수작가 등 수준 높은 작품 공모와 함께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 미술을 육성·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권위 있는 미술대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교육문화회관, 수험생 위한 문화예술 공연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록)이 대입수험능력시험과 고입연합고사를 마친 부안지역 고3 학생들과 중3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부안교육문화회관이 마련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생 문화축전은 11월 23일과 12월 21일 오전 부안교육문화회관에서 고3학생 503명과 중3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비보이 공연, 비보이 이와 함께 어울림 한 마당 서커스맨의 저급링 공연, 뮤지컬 갈라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림보게임, 즉석장기자랑 등이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열린다. /부안=이옥수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수험생 위한 '멘토와 함께하는 음악회' 내일까지 기획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수험생을 위한 기획공연 <멘토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23일~24일 오전 10시30분 국악원 예음홀과 예원당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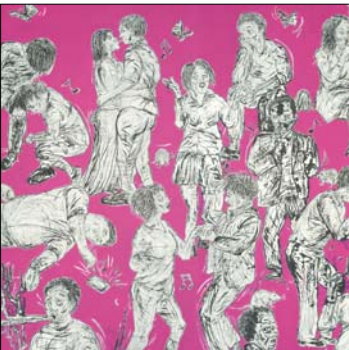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대입수학 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그간 학업으로 지친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행복한 추억을 담을 수 있게끔 기획했다.

전인교육센터의 김미진 팀장은 행복한 청춘을 위한 마음빼기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 팀장은 셀프 리더십 및 진로설계, 문제 해결과정, 코칭 커뮤니케이션 등 수험생을 위한 멘토로서 맞춤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멘토와 함께 하는 음악회 자원을 후원하는 어쿠스틱 팀이 연주를 맡았다. 이들은 국악기와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로 민속악을 표현하며 우리음악 대중화를 추구한다.

공연에선 지하철 환승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열기구야'를 비롯해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작곡한 '동치미', 김성녀가 불러 유명한 '열두 달이 다 좋아', 1박2일에 나와서 흥미를 끈 '난감하게'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문의 063-620-2332. /정해은 기자



김원 작가



박지은 작가



한정무 작가

우진문화재단, '2017 청년작가초대전'에 김원·박지은·한정무 선정

우진문화재단은 2017 청년작가초대전에 참여 할 작가로 김 원, 박지은 한정무를 결정했다.

우진문화재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21일 까지 청년작가를 공모, 열악한 창작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작업하고 뛰어난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들을 선정했다

최효준 (전 경기도미술관장·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술가의 길을 가는 많은 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원(1982) 작가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아시아 그리고 쌀 전(2010,2012), 시대정

신과 동양화회의 표현의식(2014, 한원미술관) 전시에 참여했다. 초대전에선 체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체득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집약과 해체를 통한 사회의 현대 민상을 한지의 먹과 분채로 표현한 계획이다.

박지은(1977) 작가는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한국미술대상전 대상(2009)을 수상했으며, 이랜드 지원작가(2011) 및 동화제작가승문화재단 작가(2012)에 선정된 바 있다. KIAF, 화랑미술제에 참여했다.

박 작가는 우리미술의 전통적 소재인 옷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인간관계에서 드러내고 싶은 삶의 향기를

한정무(1972) 작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석·

박사과정 수료했다. 현재는 전북대 미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오이타 조각공모전 입선(1996), 홍익아외조각공모전 특선(1999)에 입상한 바 있다

한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종종 등장하는 상반된 개념을 동그라미와 네모, 막힌 것과 뚫린 것, 안과 밖, 불룩한 것과 오목한 것, 거친 것과 고운 것 등을 대비시키며 작품 활동을 하다보면 중국에는 그것들이 많아 있음에 도달한다며 '통로'를 주제로 한 조각과 설치작업을 통해 의식 너머 새로운 당위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재단은 선정된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2017년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각각 2주간의 초대전시도 도울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23일)

<p>▷쥐띠 46년생: 손재주가 따르는 운이니 금전관리에 신경써라. 60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화가 발생한다. 84년생: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운.</p>	<p>▷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인해 고독이 따르게 된다. 61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난이 많으나 후반에는 좋은 결과. 73년생: 욕심은 금물,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85년생: 동생의 도움을 보다는 이성의 도움을 구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문서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62년생: 원행은 삼가라. 중을 일이 없다. 74년생: 정성이 유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삼가라. 86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엇갈리는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매사에 겸손함이 필요하다. 6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7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
<p>▷용띠 52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독하나 나중에는 뜻대로 이루어진다. 64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에도 중요해 타인에게 인정. 76년생: 속마음과 다르게 언행을 하게 되니 솔직한 자기표현 필요. 88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있으니 베풀라.</p>	<p>▷뱀띠 53년생: 정신적인 압박은 있으나 심리적인 부분일 뿐이다. 65년생: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큰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 7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89년생: 동기진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78년생: 허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며 좋은 결실.</p>	<p>▷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다.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라.</p>
<p>▷원숭이띠 55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힘으로 근심. 69년생: 평소와 달랐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1년생: 평소와 다른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p>	<p>▷닭띠 57년생: 금전이 들어왔으나 작은 일은 성공한다. 69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81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다면 실망이 크다. 93년생: 평소와 다른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p>	<p>▷개띠 48년생: 근심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이니 주변을 둘러보라. 58년생: 매사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덕을 보기 어렵다. 기대하지 말라. 82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나 먼저 베풀라.</p>	<p>▷돼지띠 47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나 구설이 따른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7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상해가 우려되니 원행은 삼가라. 8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p>